

한국 축구 운명의 밤

내일 새벽 1시 브라질 월드컵 조추첨

한국 포트3...유럽팀 2개 포함맨 ‘죽음의 조’
‘스페셜 포트’에 추첨되는 유럽팀 최고 변수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조 추첨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조 추첨식은 7일 오전 1시(한국시간) 브라질 바이아주의 휴양도시 코스타 도 사우 이페에서 열린다.

제롬 발레 국제축구연맹(FIFA) 사무총장은 최근 FIFA 인터넷 홈페이지와 인터뷰에서 “조 추첨식은 그 자체가 하나의 메이저 이벤트”라고 말했다.

그만큼 월드컵 축구대회의 조 추첨식이 갖는 의미가 여느 스포츠 행사 못지않게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미 본선에 진출한 나라의 감독과 협회 관계자들이 행사가 열리는 코스타 도 사우이페에 모여 있으며 이 대회에 취재 신청을 한 기자 수만 해도 2000명

이 넘는다.

우리나라도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등이 4일 현지에 도착해 조 추첨식을 기다리고 있다. 2003년부터 한국 대표팀을 이끌었던 움베르투 코엘류 전 감독도 포르투갈 협회 부회장 자격으로 이번 행사에 참석해 우리 측 관계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조 추첨식은 79개 TV 방송국과 30여 개의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전 세계 200여 개 나라에 생중계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카푸(브라질), 페르난도 이에로(스페인), 지네딘 지단(프랑스), 파비오 칸나바로(이탈리아), 로타르 마테우스(독일) 등 월드컵 정상에 오른 경험에 있는 ‘축구 전설’들이 추첨을 맡을 예정이다.

■ 2014 브라질 월드컵 조추첨 포트(그룹) 배정

포트1(8개국)	개최국+틀시드	포트2(7개국)	남미+아프리카
브라질, 스페인, 독일, 아르헨티나, 벨기에, 콜롬비아, 스위스, 우루과이		나이지리아, 알제리, 코트디부아르, 카메룬, 가나, 칠레, 에콰도르	
포트3(8개국)	북중미+아시아	포트4(9개국)	유럽
대한민국, 일본, 이란, 호주, 미국, 멕시코,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잉글랜드, 포르투갈,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그리스, 러시아, 프랑스	

※ 포트4에서 한 국가는 7일 추첨 당일 포트2로 배정.

■ 한국의 최약-최강 조편성

• 최약의 조



브라질 네덜란드 대한민국 이탈리아

• 최강의 조



스위스 카메룬 대한민국 그리스

※ 카메룬(51위)은 포트2에서 가장FIFA랭킹이 낮음. 스위스(11위)최선경기 2-1 승과 그리스(남아공 월드컵 2-0 승)는 한국이 짝을 바 있음.

한국은 3번 포트에 미국, 멕시코,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일본, 이란, 호주와 함께 편성돼 이들 나라와는 한 조에 편성되지 않는다.

1번 포트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우루과이, 스페인, 독일, 벨기에, 스위스 가운데 한 팀과 2번 포트에 들어갈 있는 칠레, 에콰도르, 코트디부아르, 가나, 알제리, 나이지리아, 카메룬 등 7개국 또는 4번 포트에서 추첨을 통해 옮겨오는 유럽 국가 가운데 한 나라와 한 조에 들어간다.

또 유럽 팀들이 모인 4번 포트의 네덜란드, 이탈리아,

잉글랜드, 포르투갈, 그리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러시아, 프랑스 중 한 나라와도 묶이게 된다.

‘스페셜 포트’가 사상 첫 원정 8강 진출을 꿈꾸는 홍명보호(號)의 운명을 가른다.

조추첨 방식은 이전 사례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었지만 2번 포트에 들어갈 ‘스페셜 포트’의 주인공을 정하지 않았다. ‘스페셜 포트’의 주인공은 유럽 국가가 모인 4번 포트에서 한 팀을 무작위로 추첨해 결정한다. ‘스페셜 포트’에 당첨되는 유럽팀은 대륙별 안배 원

칙에 따라 1번 포트에 편성된다. 경우에 따라선 이탈리아, 네덜란드, 잉글랜드 등 우승 후보군들이 ‘스페셜 포트’로 뽑혀 이들 중남미 국가들과 한 조를 이룰 수 있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홍명보호가 브라질,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과 한 조에 묶여 ‘지옥의 조’가 꾸려질 가능성도 있다. 4번 포트의 유럽 국가 가운데 그나마 해볼 만한 상대로 여겨지는 그리스, 러시아 등이 ‘스페셜 포트’로 당첨되는 게 홍명보호에 유리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기성용, 풀타임 뛰었지만...

선덜랜드, 첼시에 역전패

기성용이 풀타임을 뛴 잉글랜드 프로축구 선덜랜드가 ‘난적’ 첼시에 자책골을 포함해 4골을 허용하며 1골차 역전패의 고배를 마셨다.

선덜랜드는 5일 영국 선덜랜드의 스타디움 오브 라이트에서 열린 첼시와의 2013-2014 프리미어리그 14라운드 홈 경기에서 3-4로 졌다. 이날 패배로 2승2무10패를 기록한 선덜랜드는 정규리그 ‘꼴찌 탈출’에 실패했다.

기성용은 수비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공격 포인트를 따내지 못한 채 최근 정규리그(4경기)와 컵대회(1경기)를 합쳐 5경기 연속 풀타임 출전에 만족해야 했다. 공격수 지동원은 출전 선수 명단에서 제외됐다.

첼시의 벨기에 출신 ‘왼쪽 날개’ 에당 아자르를 제대로 막지 못한 게 패인이 됐다. 아자르는 이날 2골 1도움을 기록하며 첼시가 얻은 4골 가운데 3골을 책임졌다. 특히 첼시의 네 번째 골이 선덜랜드의 자책골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아자르의 발끝에서 모든 골이 나온 셈이다.

기성용은 후반 추가 시간에 과감한 왼쪽 측면 돌파로 동료에게 득점 기회를 만들어줬지만 골로 이어지지 못했고, 곧바로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슈팅 기회를 잡았지만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헛발질해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카디프 시티의 김보경은 스토크시티와의 원정경기에서 교체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끝내 출전 기회를 잡지 못했고 팀도 득점 없이 비겼다. /연합뉴스

손흥민, 팀 승리 이끈 76분

레버쿠젠 독일컵 8강 진출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는 손흥민(레버쿠젠)이 소속팀의 컵대회 8강 진출에 힘을 보탰다.

레버쿠젠은 5일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메이저 솔라슈타디온에서 열린 SC 프라이부르크와의 2013-2014 독일축구협회(DFB) 포칼 3라운드(16강)에서 로비쿠루스와 엠레 칸의 연속골로 2-1로 이겼다.

손흥민은 선발로 출격, 76분간 그라운드를 누볐다. 그러나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한 채 후반 31분 엔스헤켈러와 교체됐다.

전반 1분 만에 쿠루스의 선제골로 앞서간 레버쿠젠은 전반 19분 프라이부르크의 긴터 마티아스에게 헤딩 동점골을 내주며 잠시 추축했다. 레버쿠젠은 후반 들어서도 별다른 공격 기회를 잡지 못하며 고전했다.

8일 정규리그 강호 도르트문트전을 앞둔 터라 사비히피아 감독은 후반 19분 슈테판 키슬링을 에렌 데르디요크와 교체하고 이어 손흥민까지 교체해 체력을 안배했다.

공교롭게도 결승골은 주전 공격수가 빠진 상황에서 터졌다. 손흥민이 교체되고서 1분 뒤인 후반 32분 칸이 골 지역 왼쪽을 돌파한 뒤 수비수 두 명 사이로 오른발 슈팅을 때린 게 프라이부르크 골대에 꽂혔다.

한편 강호 바이에른 뮌헨을 홈으로 불러들인 아우크스부르크는 전반 4분 아르넌 로빈, 후반 33분 토마스 뮐러에게 밀레이 골을 내주고 0-2로 졌다. 아우크스부르크의 수비수 홍정호는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감독의 호출을 받지 못했다. /연합뉴스

‘애절’ 연아

올림픽 프로그램 연습 공개...사랑 그리는 여인 감성표현·점프 완벽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사용할 소프트웨어를 처음 공개한 ‘피겨 여왕’ 김연아(23)는 “키워드는 그리움과 애절함”이라고 설명했다.

김연아는 5일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의 돌 스포르토바 빙상장에서 ‘골든 스핀 오브 자그레브’의 첫 공식 연습을 마친 뒤 인터뷰에 나서 자신의 프로그램을 간략히 설명했다.

이날 김연아는 소프트웨어로 준비한 음악 ‘어릿광대를 보내주오(Send in Clowns)’에 맞춰 2분50초의 연기를 펼쳤다. 이 프로그램은 뮤지컬 ‘리틀 나이트 뮤직’에 삽입된 곡으로, 중년의 여배우가 엇갈린 사랑의 아픔을 고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연아는 프로그램을 이해할 키워드를 알려달라는 질문에 “뮤지컬의 줄거리에 따르면 여주인공이 지나간 사랑을 그리워하는 것이다. 그리움과 애절함, 과거

를 회상하며 행복했던 모습을 떠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연아가 집중한 부분은 감정의 표현이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감정 표현을 연결하려 했다. 짧은 프로그램인 만큼 한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끝까지 감정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훈련은 김연아가 오른발 부상을 털어내고 치르는 시즌 첫 대회의 시작이기도 했다.

김연아는 “훈련 첫날이다 보니 피곤함이 없지는 않았으나 얼음에 적응하는 데 집중했다”면서 “점프 외에도 스텝과 발 움직임 등을 점검했고 얼음과 경기장에 적응하려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이날 김연아는 아이스링크가 다른 곳보다 다소 작다 보니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링크 끝에서 뛰어오르는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티 콤비네이션 점프에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뒤쪽의 점프를 아예 뛰어오르지 못하고 펜스에 부딪힐 뻔하기도 했다. 하지만 몇 차례 같은 점프를 연습한 끝에 마지막에는 완벽히 소화하며 적응을 마쳤다.

김연아는 이날 크로아티아 언론 등 다양한 외신으로부터도 질문 세례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그는 “올림픽 시즌의 첫 대회이긴 하지만 지금은 소치올림픽을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대회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회를 마치고 올림픽 전에 다른 대회를 치를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 “올림픽이 다가오다 보니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여기저기서 우승후보로 지목받아 부담이 없지는 않지만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짐을 털고 편안한 마음으로 나서고 싶다”고 각오를 보였다. /연합뉴스



겨울 기차여행
(주)대원여행사
062)526-7000
www.daewontour.com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대원빌딩 4층 [신세계백화점 3가]에
※ 각 역에서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광주역 062)525-4835 광주송정역 062)941-3278
후원 KORAIL 한국관광공사
광주본부 광원점

남이섬

크리스마스에 떠나는
남이섬 기차여행 (12월24일)

시 간	일 정
00:05	광주역출발/가평역 도착
07:00	남이섬/김유정문학촌관광
11:40	춘천소양댌 관광
13:10	춘천먹거리 자유중식
21:53	춘천역 출발/광주역 도착

1인당 개인경비 성인 79,000원
소아 59,000원

동해 일출

동해 추암 촛대바위 일출 기차여행 (12월31일)

시 간	일 정
22:00	광주역출발/동해역 도착
06:40	추암 촛대바위 새해 일출
09:00	천곡동굴 관광/죽서루 관광
12:10	북호어시장 자유중식
22:30	동해역 출발/광주역 도착

1인당 개인경비 성인 99,000원
소아 70,000원

태백산

태백산 눈꽃 열차 (1월 매주 금요일)

시 간	일 정
21:45	광주역 출발/태백역 도착
06:30	태백산 등반 및 관광
12:00	하이원스키장 곤도라 탑승
22:05	고한역 출발/광주역 도착

1인당 개인경비 성인 85,000원

정동진

정동진 일출 열차 (1월 매주 금요일)

시 간	일 정
21:45	광주역출발/태백역 도착
06:30	정동진 일출 및 관광
12:00	하이원스키장 곤도라
22:05	고한역 출발/광주역 도착

1인당 개인경비 성인 85,000원

하이원 스키장

하이원 스키장 시즌버스 매일 왕복

시 간	일 정
03:00	염주체육관 주차장
03:05	신세계 백화점 육교 밑
03:10	문화예술회관 육교 밑
08:00	하이원 스키장 도착
16:30	하이원 스키장 출발
21:30	광주도착

1일 왕복요금 50,000원
리프트카장비렌탈(주중60% 주말 50%) 할인적용